

# 국가는 집이어야 한다

이완배 기자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정면으로 짚었다. 최근 '설계자들'을 낸 이 기자는 19일 유튜브 김용민TV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본주의를 "인류의 긴 역사에서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하면 고작 5초에 해당하는 체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본주의 이전의 인류는 인간을 경쟁자가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왔다"며, "자본주의는 '사회는 없고 개인만 있다'는 사고를 확산시키며 인간의 삶을 파멸화했다"고 진단했다.

## 했다. "불평등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운과 구조"

이완배 기자는 빈곤과 실패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크리에이터 활동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의 삶이 행복한 이유는 노력보다도 운의 요소가 컸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성공과 실패에는 개인의 능력보다 구조와 우연이 크게 작용한다"며,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고착화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가 사회적 조건과 타인의 실패 위에서 형성된 '사회적 선물'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와 연대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보다 먼저, 복지에 대한 신뢰를"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기자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원칙적으로 옳다"면서도 "복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먼저 추진하면 사회적 반발로 민주 정부의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민들이 '늘거나 실직해도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부동산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며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연대는 이미 존재한다...다시 살려야 할 본능"

이완배 기자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연대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팟캐스트와 대안 언론의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언론 구조를 바꾼 힘은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였다면 이런 연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언급하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 점주, 소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만을 위한 결정 구조는 필연적으로 노동과 생명을 희생시킨다"며, "이 사회의 구성 자체를 바꾸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도를 늦추고 폭력을 줄이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 "국가는 모두의 집이어야 한다"

대답을 마무리하며 이완배 기자는 "국가는 성적 좋은 자식에게만 자원을 몰아주는 집이 아니라 아픈 아이와 뒤쳐진 아이를 함께 돌보는 '모두의 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이전의 상식이었던 상호 보호와 연대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불평등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성된 설계도는 없다"면서 "각자가 일상에서 연대와 공공성을 선택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사회의 설계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2월 21일  
통권 13권 51호  
대림절 4주일

2025년 뱅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뱅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양미혜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뱅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기 위한 한 빛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빈가운 소식 2:32 (복한 성경)

# 주일에배순서

## 찬양

인도 오광석 전도사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윤 집사·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 사회 이진영 집사

징울림 Slet prayer *		정방남 원로
신앙고백 Creed *	병κε교회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Hymn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함께
기도 Prayer		김경순 집사
독서 Bible reading	이사야 9:2, 5~7	사회자
설교 Sermon	우리에게 온 아기	김용민 목사
성찬식 Communion service		김용민 목사
광고 News		사회자
파송곡 Closing Song *	교회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		김용민 목사

## ■ 병κε교회 신앙고백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 성경 이사야 9:2, 6~7

2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6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7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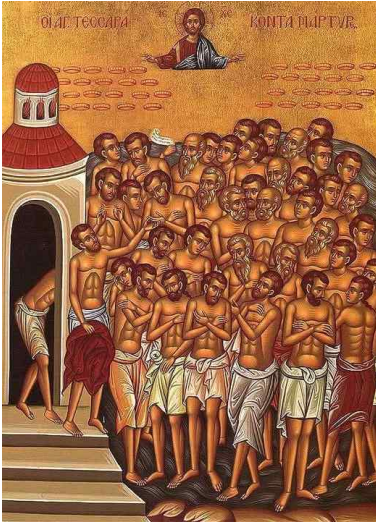
## ■ 오늘 설교 요약

오늘날 우리는 자본이 모든 가치를 집어삼키고, 외형적 권력과 숫자가 성공의 척도가 된 '물신주의의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강대국 아시리아의 군함발 소리와 지도층의 타락으로 신음하던 기원전 8세기 이사야 시대의 어둠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아하스 왕은 보이지 않는 정의 대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철기 문명과 군사력을 숭배하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불사했습니다. 그 철혹 같은 절망의 정점에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

기가 났다." 사람들은 압도적인 힘으로 로마를 굴복시킬 군사적 초인을 기다렸으나,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의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기는 세상이 갈구하던 지배적 초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비워 가장 낮은 곳에 임함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역설적 초인'입니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승리는 외적 보상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내적 성숙'과 '자기 통제력'에서 비롯됩니다. 외형적 지표와 권력 유지에만 집착한 채, 정작 국정을 지탱할 민주적 가치와 공감이라는 '내적 실력'을 상실한 권력

의 끝은 결국 계엄령과 같은 파국이었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권력은 결코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거대한 성벽을 쌓는 '권력의 종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처럼, 고통받는 이웃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하강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아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영웅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균열 사이에서 환대와 연대를 실천하며, '성공의 서사'를 '생명의 서사'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인 아기입니다.

# 겨울의 순교자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 박해 종식 칙서에 공동서명한 리키니우스 동로마 황제는 316년 태도를 돌변하여 카파도키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한다.

Bishop Basil of Caesarea (370~379)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세바스티아(지금 터키의 Sivas)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아그리콜라우스는 40명의 기독교인 군인들을 별거벗겨 쪼뽏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고 집어 넣는 고문을 가하며 배교를 강요한다. 그리고 호수

결에는 장작불을 지펴놓고 이교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를 놓아 두고 배교를 유혹했다.

그러나 40인의 군인들은 한 목소리로 밤새 노래를 부르며 버텼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들은 3일간이나 지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기도와 노래를 했는데 그만 그 중 한 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이교 신에게 절하고 따뜻한 욕조에 뛰어들었으나 심장마비로 즉사하고 만다.

동료의 배교로 슬픔에 잠긴 군인들은 다시 힘을 내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명의 선한 군인, 39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 때 이교도 교도관 군인이 잠시 졸다가 꿈을 꿴는데 하늘에서 천사장이 내려와 순교를 작정한 이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는 것이 아닌가. 이에 감동한 교도관 군인이 배교한 병사의 자리를 대신 자기가 채워 면류관을 받기 위해 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순교를 다짐한 대열에 참가한다. 군인들은 다시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그 다음 날 아침 총독은 아직도 숨이 남아 있는 40명을 끄집어 내어 화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들의 장엄한 순교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중지되는데, 바로 2년 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를 마지막 회전에서 격파시키며 로마 제국을 재통일하고, 기독교에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 옥성득 UCLA 한국기독교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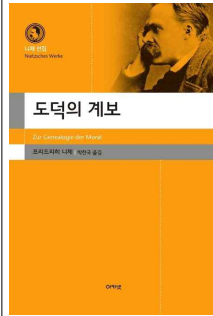
##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성탄 메시지 중

**구세주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땅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탐욕과 부조리가 빚어낸 사회적 참사와 기후 재난의 거대한 아픔 앞에서 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등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의 시간은 여전히 고통에 멈춰 있고, 기후 재해는 지구 전체의 터전을 위협합니다. 교회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 사회를 만드는 일에 연대하며, 상처 입은 창조 세계를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화 목사

## 김목사와 책읽기 니체의 ‘도덕의 계보’



니체는 기독교를 가장 독하게 비판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했기에 이런 사유가 가능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니체의 사유는 역설적 의미를 지닌다. 그는 기독교를 단순히 조롱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신앙 자체를 질문의 자리로 끌어올렸다. 『도덕의 계보학』은 그 질문의 결정체이며, 도덕과 신앙의 언어가 실제로 어떤 힘과 욕망에서 생성되고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묻는, 보기 드문 용기의 책이다.

니체는 도덕을 초월적이고 영원한 진리로 전제하지 않았다. 그는 도덕을 역사·심리·권력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산물로 추적한다. 그에게 ‘선’과 ‘악’은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누가 말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에 따라 재편되는 가치 체계다. 이 관점은 오늘 교회가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는 사랑, 거룩, 헌신, 순종이라는 언어를 다시 점검하게 만든다. 우리가 선이라 부르는 것은 과연 복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특정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언어인가.

니체가 특히 날카롭게 비판한 것은 ‘원한 (ressentiment)의 도덕’이다. 이는 약자가 자신의 무력감을 직접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을 도덕으로 전환해 강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선으로 정당화하는 심리 구조다. 문제는 교회 역시 피해의식과 열등감, 비교와 경쟁의 감정을 신앙 언어로 포장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겸손과 회색을 말하면서도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숫자와 성장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면, 그 도덕은 복음이 아니라 원한의 세련된 표현일 수 있다.

니체는 도덕이 권력과 결합할 때 가장 위험해진다고 보았다. ‘선’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통’의 이름으로 배제하며, ‘질서’의 이름으로 침묵을 요구할 때, 도덕은 해방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가 된다. 직분과 헌신, 순종이 하나님 앞의 자유로운 응답이 아니라 조직 유지 위한 의무로 기능하는 순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도덕적 관리 체계로 변질된다. 니체의 질문은 냉정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엇도 보호하고 있는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분석되는 금욕주의 이상 또한 중요한 경고를 준다. 고난과 희생이 구조적 불의와 책임 회피를 가리는 장치가 될 때, “참아라”, “순종하라”, “십자가를 져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질문을 봉쇄하는 압력이 된다. 니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반기독교적 냉소가 아니라 급진적인 자기비판이다. 도덕의 기원을 묻는 일은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스스로를 우상화하지 않도록 지키는 가장 어려운 충성이다.

**주일학교** 오전 11시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룸 마태복음 9:9~13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오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메디피아공간대어 느헤미야서 6:15-19 정통 기독교의 기준 최새론 전도사
--	---

**성탄전야 수요예배** 수 오후 7시 ▶

찬양	부르신 곳에서
본문	빌립보서 2:6~7
설교	종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산에 이르다
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수	사무엘상 13:1~14 선 넘은 왕
목	마태복음 8:14~22 예수님을 따르려면
금	마태복음 8: 23~34 풍랑과 귀신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지하철 3호선 삼성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마을버스 삼성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웅현마을사거리 하차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 교회소식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리반(유레카) 입고** 몇몇 교우님들이 제자리에 안착시켜주셨습니다.

**새교우 환영** 김직현, 김미나, 서태원, 이영아 님(가나다순)이 우리 교회 교우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찬식**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변함없이 4.3의 땅 제주의 밀로 만든 빵으로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노근리 학살이 있었던 충북 영동의 포도로 만든 포도즙으로 피를 기념합니다.

**오늘 음식나눔** 오늘 공동식사는 음식나눔으로 합니다. 섬겨주신 교우님께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벙커틴은 연말 회식 자리를 갖습니다.

**24일 수요예배 겸 성탄절 전야 모임** 가족같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2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25일 성탄절** 오전 예배는 없고 오후 3시 한신대 서울 캠퍼스 예배당에서 6개 교회 연합성가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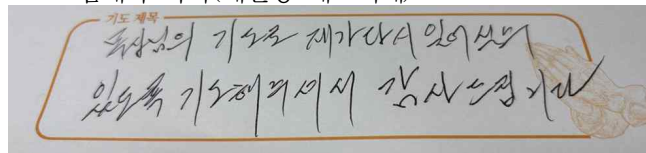
**26일 평화나무 후원행사**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금) 오후 7시부터 사단법인 평화나무 후원행사가 있습니다. 당일 참관 가능합니다.

**평화나무 탁상 달력 배부** 평화나무에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교우님께 후원 회원께 드리는 탁상용 달력을 드립니다.

**새해 갱신 등록 안내** 기존 교인의 갱신 등록이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교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세요.

**헌물** 김경은 집사(실내 크리스마스 장식)

김태복 목사(계란빵 제조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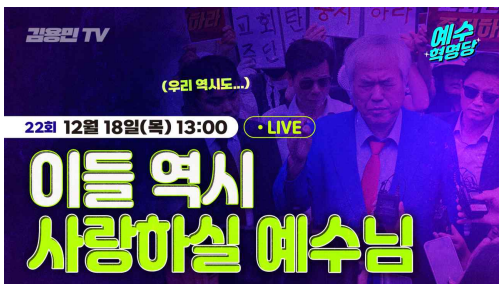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12월 교회 십일조	12월 안내	지난주 현금액
교회개혁실천연대	1남교우회	3,978,000원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지난주에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 그중에서도 가장 낯선 원수 사랑에서 출발해 예수의 기적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사랑이 어떻게 기적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